

영어 수동문의 한국어 번역 연구: 현행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번역사례 중심으로

이 은 숙
(충주대)

1. 서론

번역이란 원천언어(source language)의 메시지를 목표언어(target language)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원천언어의 메시지는 그 구조나 의미에서 가장 근접한 형태의 목표언어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를 대응어 또는 대응구조라고 표현한다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영어표현에 대한 한국어의 대응어를 찾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응어나 대응구조를 찾는 일이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단순하고 기계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음운구조, 문법구조, 의미구조 등 언어의 각 영역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어와 한국어 간의 번역문제는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언어의 대응표현을 찾아나가는 방

식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영어수동구문과 관련한 영어와 한국어의 근본적인 차이의 핵심은 무엇보다 기본 어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의 SVO어순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이거나 어떤 외부적 사건이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표현하는 구문들이 영어에서는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다 (문용 5). 이러한 특징을 기본으로 반드시 주어를 명시해야 하며 주어가 생물이거나 무생물인 경우에 상관없이 동일한 타동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문맥에서 추론이 가능한 경우 주어를 흔히 생략하며 언어 특성상 영어에 비해 타동사 구문보다는 자동사가 발달하여서 예를 들어, 영어의 ‘무생물주어+타동사+사람 목적어’의 문형은 한국어로 그대로 대응할 경우 표현이 어색해지므로 굳이 같은 구조의 동사로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영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수동구문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한국어의 경우 동일한 수동구문으로 표현하려 할 때 구문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어색한 번역문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같은 수동구문이라 하더라도 한국어의 경우와 영어의 경우는 의미적·구문적 성격이나 사용범위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양 언어의 차이점은 특히, 번역활동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것이다.

국어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영어 문장들을 대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 특히 수동태 표현이 빈번함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중·고교 영어교육과정에서 수동문을 능동문의 문법적 대안으로만 고려하는 맹목적 전환위주의 학습은 대학생 및 초보 번역자들에게 어색한 번역투와 영어식 한국어와 같은 비정상적인 언어문제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영한번역시 언어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 가운데 특히 수동구문¹⁾

1) 양 언어의 수동구문비교는 김익곤(1977), 김정주(1991), 김상옥(1996), 이영옥(2000), 김원석(2001), 조인정(2005) 등이 있다. 특히 영한번역의 측면에서 수동구문을 연구한 학자는 김정우(『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창문사)의 번역이론서와 이영옥, 조인정, 이근희의 논문들이 있다.

김정우(1996)는 수동태 번역에서 특히 한국어 피동형의 문법구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2007)에서는 번역투의 관점에서 수동구문을 설명하였다.

을 중심으로 그 차이와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올바른 수동구문의 학습과 번역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현행 7차 교육과정의 5종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로서 그곳에 실린 수동구문 300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문가 집단의 교과서 해설서번역과 100명의 비전문가 집단의 번역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수동구문과 관련한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의미적 차이

2.1. 한국어 번역과 관련한 대조 및 비교

수동구문에 있어서 한국어의 경우와 영어의 경우는 실제 사용분야가 상당히 다르며 근본적으로 구문적 의미적 성격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서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언어 유형론에서 영어는 SVO형이며 이때 주어는 반드시 존재²⁾해야 하며 어순이 한국어에 비해 고정적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 a. The thief broke the window with a hammer.
 도둑이 망치로 창문을 부셨다.
 b. The hammer broke the window.
 *망치가 창문을 부셨다.

이영옥(2000)은 언어 유형론(language typology)과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영한수동구문의 문법적 구문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텍스트에서 수집한 예문들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조인정(2005)은 수동태의 문법적 측면보다는 텍스트 기능적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영어수동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수동태의 텍스트 기능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이근희(2005)는 ‘번역투’연구에서 전문번역자의 ‘by+행위자’번역부분과 초보번역의 유형연구에서 수동태를 분석하였다.

- 2) 영어의 주어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무생물, 장소, 추상적 개념까지도 동작주성(agency) 부여하며 문장에서 주어가 반드시 필수적이다(Hawkins 56).

→ 망치로 창문을 부셨다. (담화상에서 적절한 품사전환필요)
→ 무생물주어를 부사구로 전환

c. The window broke.

창문이 깨졌다. (자동사로 번역)

논항(argument)과 술어(predicate)와의 의미적 관계에서 문법적 주어가 그 동사와 갖는 의미관계는 행위격 관계인 경우가 가장 많다. (1a-c)와 같은 예문들에서 의미범주가 행위격인 *thief*, 대격인 *window*, 도구격인 *hammer*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행위자격³⁾(thief)인 경우 즉 (1a)가 가장 기본적인 주어로 이해될 수 있다. (1b, c)는 각각 도구격 과 대격이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둘째, 한국어에서의 주어는 행위격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맥락상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자주 생략한다. (1b)처럼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 도구관계를 가지는 무생물을 주어로 받을 수 없다. (1b)는 실제 번역의 상황에서는 품사전환이 필요하다. 즉 ‘the hammer’를 우리말의 부사구 ‘망치로’로 전환하면 자연스럽다.

(2) a. The accident happened.

사고가 났다./일어났다.

b. The car broke.

차가 고장 났다.

그러나, 위의 (2)번처럼 자동사인 경우는 한국어에서도 무생물을 주어자리에 둘 수 있다.

(3) a. We wrote the mayor a letter.(시장에게 편지를 썼다.)

b. A letter was written. ((누가) 편지를 썼다.)

c. The mayor was written a letter.

3) Fillmore(1968)는 격문법에 의해 영어의 기본적으로 행위자격(Agentive), 도구격(Instrument), 여격(Dative), 작위격(Factitive), 처소격(Locative), 대격(Objective)의 6격을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장은/이 편지가 쓰여졌다.
→시장이 편지를 받았다4).

d. The waiter was left a tip.
*웨이터는 팁이 남겨졌다.
→웨이터는 팁을 받았다5).

e. This bed's been slept in.
(누군가) 침대에서 자고 있어6).

(이영옥 54, 번역 및 해설은 필자가 함)

한국어에서는 도구관계를 가지는 논항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없다. 대격 또한 동사가 수동형태가 아닌 이외에는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못하다.

위의 예문들의 한국어 번역을 살펴보면 (3a)에서 ‘우리는’ 주어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생략하는 것이 적절하며 (3b)는 영어 어순을 그대로 전환할 경우 ‘편지가 쓰여졌다’의 번역이 되는데 한국어의 행위격 주어의 특성과 맞지 않으며 문장이 어색하다. 이런 경우 한국어에서는 행위자나 목적어 등을 생략하며 특히 영어에서처럼 타동사가 그리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사를 전환하여 능동형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에서는 수동형을 쓰는 이유는 누가 ‘write’하는지 행위의 주체인지를 나타내지 않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어에서는 행위자를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동형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4) (3c)에서는 수동자가 사람이고, 동사가 수동형 ‘~쓰여 졌다’인데, 한국어의 경우 능동적 속성 때문에 피해나 수익 및 행위자를 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동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다른 동사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 5) (3d)에서 ‘웨이터는’은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담화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영어 ‘leave’ 타동사 (...을 놓고 가다, 두고 가다)에 대응되는 우리말이 없으므로 능동형 번역으로 전환해주어야 한다.
- 6) 형식상의 행위자는 ‘침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침대위에서 잠을 자는 주체는 드러나지 않는 ‘나’거나 ‘우리’이다. 한국어에서 무생물인 장소나 동물까지도 동작주로 표현하면 극히 부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번역문에서 침대를 주어로 하기 보다는 ‘침대에서’의 부사구로 처리하고 무주어(無主語) 구문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추상적 개념, 무생물, 장소 등에도 동작주성을 부여 하며, 문의 성분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동작주(주체) 뿐만 아니라 의미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거의 어떤 성분도 탈락 시킬 수 있으며 어순도 또한 자유로워서 수동문을 많이 쓰지 않는다(서정수 1996: 1364).

셋째, 영어의 감정 및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가 수동형으로 쓰일 때 한국어문형으로는 SV형의 자동사 혹은 상태형용사형으로 번역되어 능동형 구문을 형성한다(이영옥 63). 수동동사구에 전치사구(by, with, at, in ... etc.)를 동반하는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4) a. I was surprised at his visit.
그가 방문해서 놀랐다.
- b. She was interested in jazz music.
그녀는 재즈음악에 흥미가 있다.
- c. The room was filled with noise.
방이 시끄러웠다.
- d. The room was cluttered with toys.
장난감이 방에 난잡하게 흩어져 있다.
- e. The car was stuck in the mud.
차가 진흙에 빠졌다.
- f. I was much annoyed with him.
그에게는 정말 화가 났다.
- g. I was frightened by a shadow.
그림자에 놀랐다.
- h. Her contributions are well appreciated.
(그녀가) 기부금을 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한다.
- I. Mosquitoes are attracted to dark colors, especially blue.
모기는 어두운 색, 특히 푸른색을 좋아한다. (이끌린다)
- j. The road was flanked by tall trees.
길 양옆에는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예문은 성문 종합영어 p. 162에서 발췌. 번역은 필자 역)

위의 예문들 가운데 (4a, b, f, g, h, i)의 예를 들면, 화가 나다, 겁이 나다,

놀라다, 신이나다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배고파 , “나는 깜짝 놀랐어 , “기쁘다/춥다 등의 말에서 한국어에서는 “나는 은 사실상 문장의 주어 가 아니라 담화의 주체로 보며 결국 주어 없는 무(無)주어 구문이 많이 통용 된다(이현석 20).

다시 말하면, 영어의 규범적 문형의 하나인 감정의 타동사는 SVO형의 문형으로 ‘행위자-행위-목표’(actor-action-goal)의 패턴을 갖고 있어서, 수동 전환시 행위자(agent)와 수동자(patient)의 관계로 파악되지만 한국어는 행위자나 수동자 같은 개념 보다는 자동사로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주제-서술의 정보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영어 수동문이 한국어로는 능동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Theme-rheme구조⁸⁾에 의해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다음 문장의 주제, 즉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내용이 달라진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면,

- (5) a. Sumi had a book home.
수미는 집에 책이 한권 있다.
- b. She is reading the book now.
수미는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다.
- c. The book was given as a birthday present by Minsu.
민수가 그 책을 생일선물로 주었다.

(필자 예문)

(5a)의 문장에 이어서 글을 써 나갈 때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다음 문장의 주제, 즉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내용이 달라진다. 수미를 주체로 글을 써 나갈 때는 (5b)의 문장이 되는데 (5c)의 경우처럼 초점을 책에다 두는 경우에는 영어문장은 수동태라야 하지만 한국어 문장은 능동문이 적절하다. 가

7) 영어 능동문이 수동태가 되면서 능동문의 주어는 행위자(agent)가 되어 by와 함께 문미에 놓이며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patient)로 이동하게 된다.

8) Mathesius(1975)는 영어에서 주제(theme)가 보통 논리적 주어가 되고 논술(rheme)이 논리적 술부가 된다고 한다. 문장 안에서 나열관계를 살펴보면 T-R이 정상어순으로 객관적 순서이다. 보통 앞문의 R이 뒷문장의 T가 되기 때문에 이 T-R의 어순을 유지하기 위해 영어에서 수동태가 흔히 사용된다(서정수 1993: 14).

령, 영어문장을 능동형으로 ‘Minsu gave it as a birthday present’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능동문 보다는 수동문이 (5a)문장과 부합된다.

이상, 수동구문과 관련한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구문적 차이점을 능동문 번역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영어에 비하여 한국어에서는 수동태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인식하고서 올바른 영한 수동문 번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영어 수동문을 번역할 때 언어적 형식에 그대로 대응하기보다는 수동문이 쓰여진 상황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국어 번역을 해야 한다.

2. 2. 양 언어 수동구문의 화용적 의미적 비교

이제 한국어와 영어의 수동문 사용의 문체 및 화용적·의미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영어 수동문은 각각 대조적인 의미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문체(writing style)의 차이점이다. 영어에서는 *one, they, people, it*를 사용하면 객관성, 자기보호, 비개인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 영어수동문은 이런 목적에 적합하다. 다음의 한국어 문장과 영어문장을 살펴보자.

- (6) a.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밑줄 친 부분은 강조된 부분)
- b. ??We believe that the situation is critical.
- c. It is believed that the situation is critical.
- d. The situation is critical, we believe. (김상옥 125)

(6a)에서 한국어의 주어는 흔히 생략되며 밑줄 친 부분은 강조된 부분이고 한국어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은 객관성, 비개인성의 효과를 나타내는 (c)가 선호될 것이다. 한국어의 ‘~라고 전해진다, ~라고 말해진다, ~라고 믿어진다’식의 간접적 표현방식은 영어에서 주어 *it*를 동반하는 수동구문으로 전환된다. 위의 (6a)의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대응하면 (6d)가 되는데 이때 ‘우리’라는

인식의 주체는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또한 살펴보자.

- (7) a. 금일 휴업.
- b. (We are) closed today.
- c. ??My store is closed today.
- d. This store is closed today. (강수연 244)

(7a)에 가장 자연스러운 화용적 표현은 (7b)이며 (7b)수동문의 수동자가 일반인을 가리키므로 ‘We are’를 생략된 것으로 파악한다. (7d)는 ‘가게(store)’를 주어로 한 영어 수동문인데 문법상으로 가능한 문장이다.

영어의 격식체 문장에서는 능동문보다는 수동문 문체를 사용하여 겸양을 나타낼 수 있다.

- (8) a. 승객 여러분께서는 이륙하는 동안 안전벨트를 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 b. You are requested to fasten your seat-belt during our take-off.
 - c. ??I you to fasten your seat-belt during our take-off.
- (강수연 248)

한국어에서는 (8a)예문에서 존칭접사인 ‘시’를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적절한 동사를 수동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격식체 요인 중의 하나이다.

둘째, ‘포함·내포’개념의 경우 한국어는 ‘있다’형의 자동사 형태인데 반하여 영어는 담화 내용에 따라 수동과 능동이 사용될 수 있다.

- (9) a. 그 집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 b. The house contains the beautiful garden.
- c. The beautiful garden is contained by the house.

- (10) a. 집이 숲에 둘러싸여 있다.

- b. ?The forest surrounds the house.
- c. The house is surrounded by/with the forest.

(김상옥 127)

셋째, ‘관념, 인지,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능동 문위주의 문장이 사용되나, 영어에서는 담화내용에 따라 능동과 수동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감정의 표현은 영어에서는 수동문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 (11) a. 그는 이웃 부부를 안다.
- b. He knows the couple next door.
- c. The couple next door is known to him.

- (12) a.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b. The tree is known by/*to its fruit. (강수연 58)

(11)에서는 한국어 능동 표현이 영어에서는 능동과 수동문으로 선택적으로 표현가능하며 (12)의 한국어 속담을 영어로 나타낼 때는 단어 대 단어의 대응이 아닌 적절한 영어표현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넷째, ‘손해 · 손실’의 경우에 담화 내용에 영향을 받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모두 수동문을 많이 사용하며 특히 영어에서는 수동문이 압도적이다.9)

- (13) a. 배가 파도에 휩쓸렸다.
- b. The boat was swept away by the waves.

- (14) a. 그가 강에 익사했다.
- b. He(stupidly) drowned in the river.
- c. He was accidentally drowned in the river.
- d. ??*He was stupidly drowned ; Why couldn't he have been more careful?

9) 김상옥(128) 참고.

e. He was stupidly drowned ; Why couldn't they have fenced off the safe area so he could have told how far to venture out?

(이상 Bolinger 16-17)

지금까지 한국어와 영어의 수동문 사용의 문체 및 화용적·의미적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영어의 능동문과 수동문 사용은 1:1의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어는 근본적으로 ‘...하다’와 ‘...이다, ...있다’형의 언어이므로 영어 수동문을 한국어로 옮길 때에는 담화내용과 화용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3. 고교 영어 교과서 수동문의 한국어 번역 분석

3. 1. 연구 대상 및 방법

번역행위 및 번역능력은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영어 수동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연구는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능력 배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2종과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3종의 본문에 나타난 영어수동문과 그에 대한 번역문이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분석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의 교과서는 총12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단편소설, 설명문, 전기문, 정보과학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 고교과정의 영어 학습에서 영어수동태는 중요한 나름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문장 전환의 형식으로 치우치어 수동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문을 그대로 직역하여 어색한 직역의 문장연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자료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덕기 외. 2005. High School English, (주)금성출판사 교과서, 자습서

이병민 외. 2005. High School English, (주)천재교육 교과서, 자습서
 이홍수 외. 2005. High School English I, (주)케이스 교과서, 자습서
 이맹성 외. 2005. High School English I, (주)지학사 교과서, 자습서
 김덕기 외. 2005. High School English I, (주)금성출판사 교과서, 자습서

본 장에서는 5종의 교과서에서 추출된 300개의 수동문에 대한 한국어번역문의 특징과 표현상의 차이점등을 살펴봄으로써 영어문장 해석 및 번역시 단순한 국어로의 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함이나 오류들을 최소한 줄이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어 번역을 크게 ①기 출판된 교과서 자습서 번역(7인 이상의 영어 학자, 고교 영어교사 및 전문 출판인에 의해 제작됨) ②100명의 대학의 1, 2학년생그룹 즉, 번역 전문가 집단과 번역 초보자집단인 학부학생들¹⁰⁾의 번역문등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분석하고 수동문과 관련한 번역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3. 2. 전문가 집단의 한국어 번역 분석

5종의 영어교과서의 자습서 한국어 번역은 모두 7인-9인의 영어학자 및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집필하였다. 따라서 자습서에 실려 있는 번역본은 영어 전문가들에 의한 번역본으로 고려될 수 있다.¹¹⁾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 의한

-
- 10) 100명의 비전문가 집단의 표본 학생들은 본 연구자가 강의를 하고 있는 충청권 소재 Y대학, C국립대학의 학부생 1, 2학년 100명들로서 그들에게 교과서의 수동구문 가운데 임의로 뽑은 구문 100개를 뽑아서 번역과제를 주어 제출토록 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번역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없으며 중고등학교 시절의 영어 학습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1) 영어 교과서의 집필과 자습서의 제작은 7인에서 9인의 영어학자 및 일선 고교 영어 선생님들에 의해 출판되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감수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재 가운데 하나인 (주)케이스의 자습서 집필진을 보면 이홍수(전남대학교 영어과 교수), 전병만(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차경환(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이영식(한남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신동일(숙명여자 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김석수(전남교육청 중등교육 장학사), 김정훈(서울 금천고교 교사), 유승일(삼성아카데미 주강사)등 이었다. 또한 금성교과서의 경우에는 김덕기(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천재교육의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과교수)등이 있

한국어 자습서 번역이 영어학습의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중요한 번역의 연구 자료가 된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전문가 집단의 번역 분석결과는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표1 전문가 집단의 영어 수동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 분포 및 특징〉

텍스트유형	수동태 수	한국어 수동 ¹²⁾ 번역 문장 비율			한국어 능동문 번역비율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피동사 동사류(하다 →되다, 받다, 당하다)	조동사(아/어 지다)	
단편소설	10	1(10%)	3(30%)	1(10%)	5(50%)
일반설명문	110	6(5%)	33(30%)	11(10%)	65(59%)
정보과학문	105	9(8.5%)	28(27%)	9(10%)	66(62.8%)
논설문	52	3(5.7%)	18(34%)	6(11.5%)	30(57%)
전기문	16	2(12.5%)	4(25%)	3(18.7%)	9(56%)
기타	7	·	2(28.5%)	2(28.5%)	5(71%)
총계	300	21(7%)	64(21.3%)	35(11.6%)	180(60%)
		수동문 전체 통계 비율 : 120(40%)			

- 다. 또한 각 자습서 머리말부분에 ‘~ 교과서저자들이 학생여러분의 자율학습을 돕고자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선생님들과 우수한 편집진의 도움을 받아 펴낸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 자습서의 번역은 번역전문가 집단에 의한 번역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12) 한국어에서는 ‘피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본고에서는 ‘한국어 수동’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피동’의 표현도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한국어 수동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천시권(1983: 19-23)이 제시한 설명에 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①형태론적 입장에서 타동사 어간에 접미사(이, 히, 리, 기)를 붙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최현배, 이상억, 김석득, 박형달 외 5인)이 인정하는 것으로 국어 피동 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② ‘하다’ 대신에 ‘받다, 되다, 당하다’로 대체되는 것으로 피동성 동사류에 의한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방법은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문장을 형태론적으로 보느냐, 의미론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 ③동사

텍스트 별로 분류한 영어 수동문의 한국어 번역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체 영어 수동문 300개중에서 절반이 넘는 60%가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되었으며 이에 반해 한국어 수동문¹³⁾ 전체비율은 40%에 달하였다.

둘째, 한국어 수동형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제2피동형이라 불리는 피동사 동사류<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한 표현이 21.3%를 차지하였으며 피동접미사에 의한 비율은 가장 낮은 7%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의 한국어 능동문 번역을 세 가지 유형¹⁴⁾으로 세분화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각각의 예문을 분석해보고 특징을 살펴보겠다.

- (가)형 -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어 능동형으로 번역한 경우
- (나)형 - 한국어 능동형에 가까운 ‘바꾸어 말하기(paraphrase)’ 식의 경우
- (다)형 - 수동자(patient)를 한국어 목적어(을, 를)로 대치하며 능동문으로 번역한 경우

어간에 ‘아/어 지다’를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임흥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 ④ ‘게 되다’는 이상역만이 인정하고 모두 부정하고 있다. 이는 최현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범위를 좀 더 넓혀 의미론적인 면까지 수동표현에 포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사 개관에 의하면 국어의 수동 표현 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가) 제1수동형: 피동접미사(이, 히, 리, 기)에 의한 표현
- 나) 제2수동형: 피동사 동사류(하다→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한 표현
- 다) 제3수동형: 조동사(아/어 지다)에 의한 표현

본 연구자는 위의 세 가지를 수동 표현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한국어 수동문을 논의하기로 한다.

- 13) 한국어 수동으로 번역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 14) 지면상의 이유로 능동문으로 번역된 사례 중 일부를 들기로 한다.

(가)형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어 능동형으로 번역한 경우

(15) a. After lunch, we were all driven to the Pyeongyangseong.

점심을 먹은 후에 우리는 모두 평양성으로 갔다.

(금성출판사 공통영어 87)

(15a)의 예문에서 ‘차에 실리다’의 수동의미는 별개의 한국어 동사 ‘~로 가다’로 바꾸어 능동 전환이 적절한데 왜냐하면 물건이나 짐이 차에 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차에 실린다고는 한국어 화용론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영어수동태를 한국어로 옮길 경우 주어와 상황을 고려하여 능동문으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전문가의 번역을 살펴보면 원문의 언어적 측면보다는 상황과 맥락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번역한 점을 알 수 있다.

b. He was happily reunited with them and chatted with them in the living room.

그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만났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금성출판사 공통영어 199)

c. In a few moments the two girls and their young brother were brought into the room.

TT1: 잠시 뒤에 두 명의 소녀와 어린 남동생이 방으로 들어왔다.

(금성출판사 공통영어 121)

(15b)는 ‘be reunited’를 ‘재회되다, 재결합되다’라는 사전적 번역에서 벗어나 능동문으로 전환하여 가족의 상봉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15c)의 ‘be brought’는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수동구문이다. bring은 ‘①물건을 가져오다, 사람을 데려오다 ②...을 오게 하다, 가져오다 ③...을 되게 하다, 어떤 상태로 이끌다’등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의 타동사들 즉 take, make, cause, have, give ... 등은 각각의 단어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이러한 동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사전의 대표적인 의미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어와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알맞은 서술어로 전환해주어야 한다.

(16) a. I was brought under suspicion.

나는 혐의를 받았다.

b. Chulsu was brought into the world in 1980.

철수는 1980년에 세상에 태어났다.

c. He was brought to agree by our arguments.

우리는 그를 설득해서 동의하게 했다.

d. I can't bring myself to believe it.

아무래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0에서 발췌)

(16a)는 bring동사가 ‘~을 어떤 상태로 가져오다, 되게 하다’의 의미인데 ‘under suspicion’의 전치사구와 호응을 이루기 위해 ‘~혐의를 받았다’의 수동으로 표현하였다. (16b)는 bring(‘~을 데려오다, 가져오다, 초래하다’)의 의미 중에서 수동자가 사람이므로 ‘태어나다’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번역되었다.

(16c, d)는 ‘~하도록 남을 이끌다, ~할 생각이 나게 하다’의 원래 의미에서 (16c)는 수동자를 목적으로 전환하고 was brought를 ‘~하도록 설득하다’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풀어서 나타내었다. d)는 bring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myself를 받았지만 번역에서 사역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면 어색하므로 재귀대명사는 해석을 생략하고 bring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풀어서 처리하였다.

즉 전문번역가는 ST(원문 텍스트)의 구조나 품사에 얽매이기보다는 TL(목표 언어)의 언어체계 내에서 적합하면서 주변어휘들 간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TT(목표언어 텍스트)를 생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근희 175).

(나)형 - 한국어 능동형에 가까운 ‘바꾸어 말하기(paraphrase)’식의 경우

능동문의 또 다른 형태인 바꾸어 말하기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7) a. Some political and cultural issues are raised by global English.

세계영어는 몇 가지 정치적, 문화적 문제를 일으킨다.
(지학사 영어 I 88)

b. And we are definitely not allowed to leave the classroom during class time.

그리고 수업 중에는 절대로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금성출판사 공통영어 66)

c. If you have to drive, you are advised to put on chains or use snow tires.

만일 운전을 해야 한다면 체인을 부착하거나 스노우 타이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성출판사 공통영어 133)

d. One of our regular guests, Mrs. Oliver, has been robbed.

우리 단골손님인 Oliver부인 집에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학사 영어 I 65)

e. This was a common practice in many countries and many different forms can be found.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흔한 관습이었고 그 형태가 다양하다.

(지학사 영어 I 173)

‘바꾸어 말하기’는 통번역활동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목표언어 독자의 대상과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17a)는 ‘~을 일으키다, ~이 일어난다’라는 존재 및 발생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기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가독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7b, c)는 의무 충고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 전달에 더욱 효과적이다. (17e)는 ‘발견되다 → 다양하다’의 상태표현으로 바꾸었는데 훨씬 내용이해가 쉽게 된다. 교과서의 주 대상 독자가 고등학생임을 고려하여 문맥이해에 어렵지 않도록 하는 번역자의 배려가 중요하다.

(다)형-수동자(patient)를 목적어(을, 를)로 대치하며 능동문으로 번역한 경우

- (18) a. In that case, the surname was sometimes simply invented.
그러한 경우에 때때로 무턱대고 성을 만들었다.
- b. I can now understand why Moranbong is considered one of the eight most beautiful sights in Korea.
왜 모란봉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8대 경관 중의 하나로 여기 느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이상 금성출판사 91)
- c. The stopping distance gets even longer when it snows, so the driving speed should be further decreased.
눈이 올 때에는 정차거리가 더욱 길어진다. 그래서 운전속도를 더 줄여야 한다.
(금성출판사 공통영어 132)
- d. In fact, in Aboriginal art everyone is a work of art! In the past, their drawings were usually made on a person's body.
사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예술에서는 모두가 예술 작품인 셈이다. 과거에는 그들의 그림들을 주로 사람의 몸에 그렸다.
(지학사 영어 I 133)
- e. In Japan, Mendelssohn's Spring Song is often used to treat headaches.
일본에서는 멘델스존의 '봄의 노래'를 두통을 치료하는데 자주 인용한다.
(천재출판사 공통영어 62)

(18a-e)는 모두 수동자를 한국어 목적어(을, 를)로 전환하고 영어수동동사를 한국어 능동형으로 번역한 예문들이다. 한국어 기본문형 SOV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들인데 이 때, 주어는 문맥상 전후맥락으로 알 수 있거나 일반인을 나타내므로 한국어 문맥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3. 3. 비전문가집단의 한국어 번역 분석

비전문가집단에 의한 번역유형을 종합하면 한국어 수동문의 비율(63%)이

능동문 비율(3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수동문 번역에서는 한국어 제2수동형의 피동사 동사류(하다→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한 번역비율이 전체에서 29%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되다’ 서술어의 빈도가 빈번했는데 ‘되다’는 자연적 변화에 따른 수동적 상황과 수동자(patient)가 사람일 때나 사물일 때 두루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2 비전문가 집단의 번역 분석〉

한국어 능동문 비율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피동 동사류 (하다, →되다, 받다, 당하다)	조동사(아/어/지다)
37(37%)	14(14%)	29(29%)	20(20%)
수동 전체 통계 비율 : 63(63%)			

초보 번역자들은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행했던 번역이 외국어의 이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였으므로 출판물 하는 전문번역에 비해 매우 초보적이며 텍스트의 맥락과 단어들 간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이근희 196).

학부학생들은 초보 번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직역(literal translation)에 치중한 번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목표어 보다는 원문에 치중하며 이는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영어 학습의 하나의 과정으로 직독 직해식의 독해와 해석습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번역은 전문 번역가가 된 이후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모국어인 한국어 지식이 영어에 대한 지식보다 더욱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5종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300문의 수동문을 발췌하여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수동구문의 번역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다.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일선의 중 고등학교 현

장에서 영어 수동문의 의미해석에 있어 영어식 어순과 한국어의 어색한 수동문으로 해석하는 소위 영어식 한국어를 배양하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습 경험이 대학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사례를 본 연구자는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영어 수동구문을 한국어로 옮기는 부분을 가르칠 때 올바른 한국어 표현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5종의 영어교과서에서 발췌된 영어 수동문 300문은 전체 문장수 3397의 8.8%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능동문에 비해 수동문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 문장에 비해 유표적(marked)이다. 이것은 능동문장이 짧고 역동성이 있으며 더욱 자연스럽게 때문에 더욱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번역분석결과를 비교 정리해 보면 전문가 집단의 번역은 영어 수동문에 대한 한국어 수동번역 비율은 40%를 차지하고 반대로 능동번역의 비율이 60%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문가 집단은 일단 양 언어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집단으로서 목표언어 체계 내에서 어휘들 간의 호응관계, 문법체계, 화용규칙, 관용적인 용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번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비전문가 집단에 비해 자연스럽게 읽히며 번역투가 거의 없는 모범번역이었다.

비전문가 집단인 1-2학년 대학생들의 번역은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번역의 한 형태인 학습번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두 가지의 의미를 단어 대 단어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으며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품사 및 의미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번역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품질이 떨어지는 번역이다. 학습번역에 익숙하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번역자는 자신도 모르게 번역투를 생산하게 되고, 이는 곧 한국어의 언어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따라서 초보 번역자의 번역투는 전문 번역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의 연구 자료는 현행 5종의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추출한 300문의 수동문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수동문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위해서는

나머지 교과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비전문가집단의 번역 실험도 인
원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번역 실험을 통한 분석결과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 강수연. 1992.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김덕기 외. 2005. 『High School English I 교과서/자습서』. 서울: 금성출판사.
- 김덕기 외. 2005. 『High School English 교과서/자습서』. 서울: 금성출판사.
- 김상욱. 1996. 『영어와 한국어의 수동태에 대한 대조연구』. 건국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정우. 1996.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이론편』. 서울: 창문사.
- 김정우. 2007. 「번역투의 성격규명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번역학 연구』 Vol.
8-1. p. 72.
- 남기심 · 고영근 1993. 『표준 국어 문법론 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 문용. 2005. 『한국어의 발상 · 영어의 발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성문. 2004. 『성문종합영어』. 서울: 성문 출판사.
- 서정수. 1990. 『국어 문법의 연구 II』. 서울: 한국문화사.
- 서정수. 1996. 수정증보판.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이근희. 2005. 『영한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맹성 외. 2005. 『High School 공통 영어 교과서/자습서』. 서울: 지학사.
- 이병민 외. 2005. 『High School 공통 영어 교과서/자습서』. 서울: 천재교육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 47-76. 한국번역학회
- 이영옥. 2001. 「무생물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 연구』 2권 1호.
- 이현석. 2006. 『문화와 언어표현의 차이에 기초한 영한번역의 방법론 연구』. 박

사학위 논문. 서울: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흥수 외. 2005. 『High School English I 교과서/자습서』. 서울: 케이스

조인정. 2005. 「영한번역의 문제점: 수동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6권
1호.

천시권. 1983. 「국어 피동법 연구」, 국어연구 30호.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New York/London: Longman.

Fillmore, C.F. 1968. "The Case for Cas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E.
Bach and R. Harms ed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Hawkins, J. 1985. *The Unity of English-German Contrasts*. London: Croom
Helm.

Hong, K. S. 1991. *The Pa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In S. Kuno et al. ed.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V, 491-502.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Passive Construction:
Focusing on the Translation Cases of Current Highschool English Textbooks**

Lee, Eun-Sook
(Chung Ju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Passive Construction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the English passive has long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difficult elements and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translators and researchers. In translating passive construction, the difficulties of finding the exact counterpart expressions of the two languages often arise from the main structural differences in word order, the deletability of the recoverable subject, and the existence and distribution of prepositions and diverse transitive verbs that require objects.

Through this study, we could recognize that many passive sentences in English are usually expressed as active forms in Korean by experts. That is why the passive voice appears more frequently in English. Also, generally speaking, it is more natural and proper to use active voice than passive voice in Korean language system.

Because Korean has the free word-order, the topicalization, the use of thematic markers such as 'eun, nun', it is not necessary to express passive voice in Korean versions. Also, we could find distinctive translational properties of nonprofessional group. Beginners tend to be stuck in clichés or so-called 'translationese' expressions and in literal translation. However, professionals are apt to interpret a word into as many different meanings as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given contexts.

This study indicates that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English and English-Korean translation it is necessary for college students to take lessons on Korean as well as English and translation practice in a formal curriculum. By such practicing and training, beginners could reach perfect translation standard.

▶ Key Words: English passive construction, linguistic differences, Korean active voice, translationese, Korean education

이은숙

충주대학교 영어학부

bigworld21@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교육, 문학번역, 번역비평, 번역철학

논문투고일: 2008년 5월 1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7일